

發明教室

事例 등 發表

- … 장과 (株)和仁建材産業 梁榮 … ○
- … 奉사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 … ○
- … 어 洪 載日 辨理士의 「工業所 … ○
- … 有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 … ○
- … 었다.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 … ○
- … 를 간추려 紹介한다. … ○

(尹榮珣記)



합벽들의 發明人

(株)和仁建材産業 梁榮奉 사장

순수 건축인이 接合벽들을 發明하여 商品化에 성공, 發明企業人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株)和仁建材産業 梁榮奉 사장은 接合벽들 發明으로 '89 제네바 國際發明展에서 銀賞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5년여의 연구기간동안 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接合벽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건축현장에서 보면 보통 시멘트 벽들을 쌓고 그 위에 면잡기 미장을 하고 타일을 한장 한장 붙이는 공법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래식 공법은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인건비가 과다지출되므로 이를 개선한 제품을 만들어 공사기간 단축과 인건비 절약, 접착의 완벽 등을 이루고자 했어요.』

'87년 (株)和仁建材産業을 설립한 梁사장은 '88국제 무역 박람회와 '88 말레이시아국제전시회에 참가하여 接合벽들의 진가를 인정받은 후 特許 1件과 實用新案 8件, 意匠 13件 등 22件으로 무장하였다. 하지만, 이 接合벽들을 商品化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각기 다른 두가지의 재질이 결합되는 제품상의 특징때문에 팽창계수의 문제나 의장재의 자외선 변색문제, 내장재의 불연·난연문제등 단순한 벽들의 영역을 벗어난 관련 전문분야(화학, 물리, 기계)와의 공동연구

가 필요했다.

게다가 관계자료 수집이나 벽돌 성형기의 생산상의 자동화문제 등 실로 난감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接合벽들이 오늘날 인력난과 고임금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확신한 梁사장은 5년여의 세월과 5억원이라는 개발비를 투입하여 '88년11월부터 시험생산을 거쳐 금년 말부터 본격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이 接合벽들은 몰드(형틀), 파레트(바이다), 원자재(타일, 수지, 금속등의 캡)만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나 관련업체의 기계에 의해 위탁생산이 가능하므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